

GC2023 서머 프로그램 3년 만에 대면 개최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Global Collaborative 2023 Summer Program(GC2023)’이 ‘인류, 문명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린다. 입학식은 6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캠퍼스(서울캠) 청운관 B117에서 진행됐다.

231명의 국내외 수강생은 ▲국제적 CSR과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와 문명 등 3개의 트랙에서 총 13개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시각을 공유한다.

국제적 CSR과 지속 가능한 발전 트랙은 전 지구적 위기와 대응을 다룬다.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트랙은 국제 정치의 현황, 세계의 질서, 유엔의 역할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세계의 모습, NGO의 역할을 탐구한다. 인류와 문명 트랙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GC2023은 개설 강좌 12개 중 6개의 강좌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지닌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돼 수강생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GC2023 강좌는 하이브리드 강좌 6개, 오프라인 강좌 5개, 온라인 강좌 1개로 구성됐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

됐다. 이전 GC와는 달리 GC2023에서는 GC 수강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했다. 지난달 26일 GC 수강생들은 서울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와대, 경복궁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한국 문화주간 프로그램에선 템플스테이, 수원 화성 등 한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미래문명원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GC가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GC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더 나은 학문 탐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C2023에 참여한 한보람(경제학 2019) 씨는 “여름 방학 동안에 많은 경험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GC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수업을 통해 다른 학과 학생들이나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C는 올해 16주년으로 2005년 경희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간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의 후속 사업과 ‘University Collaborative for Excellence: Education, Research and Global Servi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돼 2008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운영됐다.



GC 2023 입학식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청운관 B117에서 진행됐다.(왼쪽 기사 참고)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GPA 개선 정치권서 논의 시작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hu.ac.kr

22일 보도된 뉴스1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대학의 평균 평점 백분위(GPA 백분위) 환산 문제에 대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대학 총학생회장들로부터 대학별로 다른 GPA 백분위 환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제도 개선을 위

한 논의를 했다.

GPA 백분위는 학부 성적을 백분위로 변환한 점수이다. 대학마다 GPA 백분위를 도출하는 환산법이 있기에, 각각 환산법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로스쿨 입시의 경우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돼 GPA 환산법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GPA 백분위 환산법을 개정했고, 작년 8월 15일부터 개정된 환산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개정 이후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잇따라 GPA 백분위 환산법을 개정했다. 이화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등도 GPA 백분위 환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연쇄적인 GPA 백분위 환산법 개정에 대한 우려

의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대다수 대학이 GPA 백분위 점수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상이한 환산법을 동일한 환산법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도 환산점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직접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직접 당정 협의회를 주재해 대학 학점 문제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대표는 GPA 백분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회 경희문학의숲상 문예공모

경희문학의숲상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주최하고 경희문인회, 도서출판 문학의숲이 주관하는 문예공모전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한국 문학의 인재를 발굴합니다.

- 공모대상** 경희대학교 학부생 전체(서울/국제)
- 공모기간** 2023년 7월 1일(토) 00:00 ~ 2023년 9월 20일(수) 24:00
- 공모내용** 시 : 3편(분량 무관)
소설 : 1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 상** 대상 : 100만 원(1명)
최우수상 : 70만 원(시/소설 각 1명)
우수상 : 50만 원(시/소설 각 1명)
※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함
- 공모방법** 문인회 홈페이지 원고접수 게시판 (https://khwriter.com/)
- 문의처** 21kyunghee@naver.com



주최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관 : 경희문인회 / 도서출판 문학의숲

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예비군교육훈련 모바일 소집통지 변동 안내

모바일 송달 서비스?

예비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수신 동의(최초 1회)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소집통지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는 서비스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민간 플랫폼 회원가입 정보와 매칭하여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 서비스

송달 플랫폼 변경

BEFORE 5가지 플랫폼을 통해 송달
N, TALK, TOSS, PAYCO, kt온카

AFTER 3가지 플랫폼을 통해 송달
N, TALK, 신한pay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 시 우편 통지
특정 플랫폼에서 열람 시 다른 매체는 미발송

열람시간 확대

BEFORE 24시간
플랫폼별로 각각 24시간 내 미열람 시, 네이버 카카오톡 → 토스 → 페이코 문자 순서로 발송

AFTER 48시간
플랫폼별로 각각 48시간 내 미열람 시, 네이버 → 카카오톡 → 신한play 순서로 발송

•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공지사항 참고
변경 내용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6월 7일까지 작년 송달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으로 열람 가능

제작지원 : 국방출판지원단